

제9 장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임한 은혜

(갈 4:1~24)
미미

김성우

사라	하갈
자유자	여종(노예)
이삭	이스마엘
초자연적	인간적 행위
하나님 은혜	인간의 방법(스스로 구주 됨)
불임	정상
갈라디아 신자	거짓 교사
유대인	아랍인
자유	율법아래
상속자	쫓겨난 자

복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만, 자신만만하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네가지 부류의 사람들>

“율법아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율법에 의존한다는 뜻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①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에 의존하는 자

이들은 “율법아래” 있다. 일반적으로 매우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며, 우월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확신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과 닮은 점이 많다.

②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에 의존하는 자

이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행위로 의롭다 함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나, 그에 맞게 일관되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 보다는 겸손하고 관용적이지만,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종교적인 화제를 두려워 한다. 일부는 교회에 나가지만 자신들의 낮은 영적인 자존감 때문에 주변에 머문다.

③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을 털어버렸다. 지적으로 세속적이거나 상대주의적이거나 아무 모호한 영성을 지니고 있다. 주로 스스로가 도덕적인 기준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①과 ② 부류보다는 더 행복하고 관용적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추구함으로써 구원을 획득하려고 한다.

④ 율법을 준수하나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자

이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앞의 세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율법 아래 있는 가? 율법을 들어보라!>

바울은 율법 아래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즉 율법아래 산다는 그 의미-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율법이 바로 그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거짓 교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운 아브라함을 되받아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점을 기억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길에도 바른길과 그른 길이 있다고 판세를 뒤집고 있다.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거짓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도 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자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놓친 것이다.

< 하갈에게서 배우다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이실 땅을 그의 상속자에게 주어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고 관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14년 후에 100세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약속에 따라 낳은 것이다.

<논쟁이 되는 반전>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시내산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표징을 삼았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수단이자 삶의 원리로 삼은 사람들을 시내산의 언약의 계명, 현재의 예루살렘, 하갈 등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이스마엘은 전통적으로 아랍인들의 선조다. 바울은 이들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라고 지칭하였다. 즉 하나님 백성의 외부 사람들(아라비아)로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시내산)이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고 오직 사라와 이삭만이 약속의 계보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었기에, 이런 표현-시내산의 언약의 계명, 현재의 예루살렘, 하갈-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하면서, “행위”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의 믿음은 스스로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불과했다.

그것은 자유자인 사라는 종인 하갈에게 극도로 질투를 받는 상태로 놓이게 되었고, 가정은 분열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라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교만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적으로 여종이며 이방인인 쫓겨난 자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거짓 교사들의 심성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마치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와도 같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스마엘과 같다. 더 심각한 노예 상태인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혈통상 사라의 후손이었지만, 영혼과 마음으로는 자신들이 경멸하는 그

자손(이스마엘)과 같았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 더 나아가

<복음에 관한 알레고리>

바울은 아브라함, 하갈, 사라의 이야기를 은혜와 행위를 예증하는 좋은 상징으로 보고 거짓교사들을 누르기 위해 사용하였다. 바울은 하갈의 아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에,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사용한 것이다.

바울이 주장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점을 자신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옮겨야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신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돌아보기를 원했다.

<복음: 불임 여자에게 주어진 은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자녀보다 많음이라”.

구약의 불임 여성인 사라와 신약의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박해”를 당한 것으로 정의하고 상황을 반전시켜 갈라디아 신자들을 강력하게 위로한다.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임의 사라들을 위한 것이다. 사라에게 미래가 있다면 누구에게든 미래가 있다라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다. 즉 복음은 결국에 노예가 되는 자들을 “강하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종교적이며, 자기 의에 가득 찬 자들임을 보여준다.

<실망스러운 실패를 위한 복음>

성경은 여성이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없음으로 한 인생의 전부나 가치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종교와 철학은 하나님과 구원이 오직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구원은 스스로 선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도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강한 자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이나 영적으로 연약한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리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에서부터 종교와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까지 모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태생적인 상태의 인간이 신을 섬기는 동기와 거절하는 동기는 정확히 같다. 지독한 죄인이기에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이스마엘”, 즉 종인 것이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노예의 자녀들(이스마엘 족)이 그 자유로운 여인의 자식들(이삭)-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들 - 을 언제나 핍박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할 것이다. 복음은 종교와 담쌓은 사람들보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그들의 성의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각해보기)

- 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 앞에서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비취보는 것
- ② 행위로 인한 의로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알아보는 방법-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지 스스로를 비취보는 것.

갈라디아에서 발생한 “박해”는 육체에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하지 않는 것은 더욱 더 아니었다. 박해의 주동자는 복음적인 자유를 뒤흔드는 교회 안의 율법 의존적인 교사들이었다.

존 스토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름뿐인 교회가 가하는 핏박 - 제도와 위계 - 이 복음적인 신앙의 숙적이라고 했다.

(생각해보기)

교회안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박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내 구세주로 떠받들 수 있는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의견에 답하기 위해 오늘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까?